

식민지 시기·해방 이후 교육자·사회운동가 장리욱의 활동과 민주주의 이해* **

안 종 철***

- I. 서론
- II. 장리욱의 교육배경과 민주주의
- III. 해방 후 활동과 장리욱의 “민주주의”
- IV. 결론

I. 서론

장리욱(張利郁, 1895-1983)¹⁾은 우남(霧南) 이승만의 동지회와 더불어 한국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두 세력 중 하나였던 홍사단(국내지부 수양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0-INC-22 30010).

** 장리욱의 출판물과 자료를 공유해주신 장리욱 가족과 관련 연구를 기획해주신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유명미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국립베니스대 동양학부 조교수(jongchol.an@unive.it). 한국근현대사 전공.

1) 최근에 이름을 장이욱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장이욱” 란(<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756>)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계속 장리욱이라고 표기해왔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장리욱”이라고 쓴다.

동우회)을 이끌었던 주요인물이다. 홍사단을 창립한 도산(島山) 안창호가 남긴 글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장리욱은 도산의 생각과 홍사단의 활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²⁾ 장리욱은 식민지시기 평양 출생으로 유신(維新)소학교(초등)와 숭실학교(중등)를 1908, 1912년 각각 졸업 후 일본의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를 거쳐서 미국 아이오와(Iowa)주에 있는 장로교계 대학인 듀북대학교(Dubuque College)와 뉴욕에 있는 콜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를 했던 식민지시기 미국통 지식인이다. 귀국 직후 평북 선천의 중등학교인 신성학교에서 1928년부터 교장으로 있다가,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사임하게 되었다.³⁾ 이후 학교 일선에서 물러나서 평양의 기업인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계열의 압력을 받고 얼마 후 물러나게 되었다.⁴⁾ 한국전쟁 기간에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군사령부 초청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는데 이 기간 주로 반공 관련된 문서번역과 방송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한국 내 민주주의 확산에 노력했다.⁵⁾ 한국전쟁 이후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8년에야 귀국했다. 한편 1960년 4.19 직후, 주미대사(1960-61)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
- 2) 장리욱, 『도산의 생애와 인격』, 홍사단출판부, 1970(2010년에 재출간). 뒤에 언급하겠지만 장리욱은 1920년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홍사단에서 사무를 직접 몇 차례 맡아보고 도산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다.
 - 3) 장리욱의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장리욱, 『나의 회고록』 (샘터, 1975)과 앞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장이욱”란을 참고.
 - 4) 장리욱의 기본적인 사상과 활동을 정리한 기본적인 연구는 박의수, 「장리욱의 생애와 교육사상」, 『교육철학』, 1988, 22-39쪽 참고.
 - 5) 박의수, 「장리욱의 생애와 교육사상」, 25-26쪽. 한편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에서의 장리욱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시론적 논의로 주목할 연구는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493-525쪽 참고.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물러나게 되었고, 미국에 남아있다가 민정이양이 된 1964년에야 귀국, 이후 줄곧 홍사단 활동과 『샘터』 잡지 발행인으로 오랫동안 있었다.⁶⁾ 그만큼 해방 직후 비중있는 인물이었는데 당대 인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⁷⁾ 즉 안창호의 수제자였지만 사회운동 내지 활동가 중에서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⁸⁾ 대중적인 인식만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장리욱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⁹⁾ 그러나 장리욱은 냉전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인식이라는 점에서 나름 뚜렷한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할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의 활동은 높은 직책을 통한 영향력이나, 학계나 종교계를 통한 다양한 저술활동이라기 보다, 문서보급과 언론활동 등을 통한 실제적 사회참여나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장리욱을 통해 식민지, 해방 직후, 그리고 이승만·박

6) 박의수, 「장리욱의 생애와 교육사상」, 26쪽.

7)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특집 하의 『한국사시민강좌』 43호(일조각, 2008)에서 미군정 하의 오천석(문교부장)이나 정부수립 후 백낙준(문교부장관)에 대해 다루었지만 장리욱은 다루지 않았다. 위의 『한국사시민강좌』 43호의 「오천석, 새 나라의 교육을 설계하다」와 「백낙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정립하다」 참조.

8) 현 미국의 홍사단 윤창희 위원장은 “도산이 한국 민족과 홍사단의 설계사(architect)라고 한다면, 장리욱 단우는 홍사단을 반석(磐石) 위에 세운 건축가(builder)이다. 1916년도에 도산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1925년부터 1938년까지 도산의 훈육 속에 기억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도산의 사상과 철학을 반영한 책이 ‘도산의 인격과 생애’다”라고 말했다. <http://www.okja.org/interview/87589> (검색일: 2021년 10월 7일).

9) 앞의 박의수, 「장리욱의 생애와 교육사상」 정도가 유일하다. 오천석에 대해서는 이윤미, 「일제하 미국 유학생으로서의 오천석: 유학생회 활동과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 2017.; 백낙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서정민, 「한국교회사연구의 시원과 백낙준의 『한국개신교사』」,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회전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정희 등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한국 내 “민주주의”에 대한 한 흐름을 주목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민주주의론과 자유주의 교육사상을 다룬 기존 연구는 장리욱의 사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 논문은 장리욱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다루면서 세 가지 면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식민지하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과 사상을 그런 표제어로 읽어보려고 한다. 둘째, 해방 직후 한국 전쟁기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격동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론”은 어떤 현실적 의미가 있었는지 보고자 한다. 셋째, 1958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장리욱의 흥사단 활동이나 출판 활동 등을 통해서 권위주의 정부 혹은 냉전 하에서 갖는 “민주주의론”의 의미를 보고자 한다.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20세기 식민지, 분단, 전쟁, 권위주의 하에서 한 지식인을 통해서 면면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그 한계 등을 보면서, 오늘날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장은 주로 식민지시기 장리욱의 교육배경(1절)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2절)를 다루고, 3장은 해방 후를 다루되, 3장 1절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3장 2절은 한국전쟁 이후의 장리욱의 활동과 “민주주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맺음말인 4장에서 논문의 요약과 한계,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리욱의 교육배경과 민주주의

1. 식민지 시기 교육과 활동

장리욱은 평양 숭실학교를 거쳐서 미국에서 듀북(Dubuque)대학에서

10) 박의수, 「장리욱의 생애와 교육사상」.

학부(1925)를 마친 후,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1927년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콜럼비아대학은 실용주의 교육으로 유명한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오랫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가르치고 실험했던 학교로 미국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다.¹¹⁾ 장리욱이 공부하던 때, 콜럼비아에서는 존 듀이와 더불어 그의 수제자인 윌리엄 킬패트릭(William Heard Kilpatrick, 1871-1965)이 사범대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시 킬패트릭도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존 듀이의 사상을 전달하고 있었고¹²⁾ 두 사람의 수업을 장리욱은 수강했다.¹³⁾

콜럼비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익힌 장리욱은 석사학위 취득 후, 보성여학교 교장이었던 스티븐스의 추천으로 당시 평안북도 선천에 있었던 중등학교였던 신성학교의 교장으로 이듬해 1928년 초에 부임했다. 당시 미북장로교 선교사회는 조선에서 8개의 미션스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28년에 드디어 첫 조선인 교장을 임명했던 것이

11) 존 듀이는 시카고대학에서 10년 정도 재직 후, 1905년 콜럼비아대학교 철학가로 옮겨, 사범대에서도 가르치면서 1930년 경 은퇴했다. 콜럼비아대학교에 재직 시 이미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 초빙을 받아서 연사로 활동했는데, 터키, 중국, 일본 등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1919-21년에 2년간 머물기도 했다. 콜럼비아대학교에서의 듀이의 활동은 콜럼비아대학교 홈페이지(https://c250.columbia.edu/c250_celebrates/remarkable_columbians/john_dewey.html)참고.

12) 콜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엘리트들은 연대순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조병욱(1925, 철학박사), 장리욱(1927, 교육학석사), 황에덕(1928, 교육학 석사), 박인덕(1930, 교육학 석사), 오천석(1931, 교육학박사), 김활란(1931, 철학박사). 김활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서북지역과 관련이 있었다(조병욱은 충청도이나 숭실학교 수학). 이들 대부분은 해방 후에도 교육 및 정치 엘리트로 활동했다.

13) 콜럼비아대학교의 자료(Columbia Catalog)는 1926-27년, 듀이가 “203Z—Ethics and educational problems. 2 points”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Columbia University Archive (<https://mail.google.com/mail/u/1/#inbox/FMfcgzG1kFzcPSNNbzKKBLcNkcmdHXGb?projector=1&messagePartId=0.1>)(장리욱 가족 제공 자료).

다.14) 그가 부임해오기 직전인 1927년에 미 북장로교와 조선인 장로회가 함께 학교운영을 시작했는데, 장로회는 평북노회, 용천노회, 그리고 의산노회였다.

그가 신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착수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정학교화”였다. 공립인 고등보통학교와 더불어, 총독부 “지정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당시 조선인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장리옥은 취임하자마자 교육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이때 國內에서 學校를 運營한다는 것은 教育 그 자체보다 敎育을 위한 그 手段的 要件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훌륭한 校舍와 付屬建物을 짓거나 기타 시설을 갖추는 일, 基金을 積立하는 일, 正規學校로 昇格시키는 일 등이 學校行政에 있어서 언제나 優先順位였었다.(강조: 필자)¹⁵⁾

결국 그는 신성학교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유자격 교원을 채용하면서 결국 1931년 3월에 총독부에서 “지정학교” 인가를 받아냈다.¹⁶⁾

14) 8개의 미션 스쿨은 서울(정신여, 경신), 평양(송의여, 송실), 선천(보성여, 신성), 대구(신명여, 계성)이었다. 당시 공립학교와 별도로, 식민지하의 사립인 미션스쿨은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총독부의 “지정학교” 자격을 획득해야 했는데, 1920-30년대 미션스쿨의 최대 과제는 바로 이 “지정학교” 자격 취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전, 『아메리카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 스쿨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東京: 社會評論社, 2006, 213-236쪽,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58-60쪽.

15) 장리옥, 『나의 회고록』, 147쪽.

16) 그와 당시 평북지역의 인사들과 총독부 학무국과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장리옥, 『나의 회고록』, 141-146쪽. 평북, 의산, 용천 노회의 신성학교 인계과정과 “지정학교화”에 대해서는 박혜진, 「선천지역 미션스쿨 지정학교 승격과 학교 인계 과정 연구」, 『역사학연구』 38집, 2010 참고.

한편 장리욱은 신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등보통교육(인문계 중등학교), 실업학교와의 조화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은 그 한 예이다.

以上 簡單한 所述은 어느 種類의 教育이 어느 다른 種類의 教育보다 優越하다든지 或 더 必要하다든지 하는 論調가 아님은 諸氏가 다 같이 느낄 줄 믿는다. 그러나 오늘 朝鮮의 現狀에 비치어 말한다면 밥부터 먹을 教育이 더 必要치 안느냐고 할 이가 많을 줄 믿는다. 그러케 同感한다. 그러나 밥만을 爲한 實業教育은 眞正한 意義에 있어 教育은 아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 『우리는 어느 種類의 教育을 받으랴?』 이것이 問題된다고 하느니보다 오히려 『우리의 받느마 教育을 어떻게 받으랴?』 이것이 問題다. 高普教育을 받는 이는 實業教育의 理想을, 實業教育을 받는 이는 普通教育의 理想을 떠나지 말자.¹⁷⁾

그는 두 종류의 교육제도를 설명하면서도, 실업교육과 인문교육의 근본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1937-38년, 파시즘 체제로 가던 일본 당국은 수양동우회 사건을 조작해서 그는 관련인사로 당국에 구류되었고, 이 기간에 결국 신성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¹⁸⁾ 1년 반 정도의 유치장 생활을 한 후, 그는 평양으로 와서 1939년부터 해방 때까지 “평양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같은 수양동우회 회원이

17) 장리욱, 「中等學校: 實業教育? 高普教育?」, 『동광』 18호, 1931, 57쪽.

18) 장리욱, 『나의 회고록』, 178-192쪽. 수양동우회 사건은 1937년에 문제가 되었지만 재판과정이 다 끝나게 된 것은 1941년 무렵이었다. 당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불법적인 구류와 고문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특히 서북 지역의 엘리트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컸다. 수양동우회 사건에 대한 연구는 조배원, 「수양동우회·동우회연구」(성균관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정도를 들 수 있다. 수양동우회에 대한 운동사나 정책사적 관점과 별개로 식민지 사법체계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있던 평양의 실업인 김동원(평양고무공업회사 사장)의 배려였다.¹⁹⁾ 그는 이 직책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2. 식민지 시기 민주주의의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사상으로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정치를 실현한 것을 시초로 한 것인데, 특히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핵심으로 한다.²⁰⁾ 그러던 것이 프랑스 혁명 후인 19세기 초,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Tocqueville, 1805-1859)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었다. 그는 “인민주권의 원칙”에 더해,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헌법과 사법 등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와 시민의 역할 등을 언급했다.²¹⁾ 그리고 19세기 중엽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9)은 “대의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설교했다.

한편 조선시대 말에 전래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정립된 대의제 정부, 혹은 공화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가 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사회적으로 약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장리욱이 직접 공적매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글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식민지 총독부 체제하에서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교육 배경과 활동을 통해서 당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그의 개신교 배경을 들 수 있다. 장리욱의 어린 시절 교육과 한국에서의 활동이 주로 개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

19) 장리욱, 『나의 회고록』, 195-205쪽.

20) Melissa Lane, *Greek and Roman Political Ideas*, New York: Penguin Group, 2014, pp.98-103.

21) Alexis de Tocqueville (Trans. Gerald E. Bevan), *Democracy in America and Two Essays o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3, pp.68-71.

교인들이 시작한 초등교육기관과 송실학교 등에서 공부했었다. 이는 그가 총독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한국 통치 방식에 대해서 쉽게 동조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그는 일본에서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를 다니면서 일본어와 영어를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대학입학도 함께 준비했다. 흥미롭게도 거기서 그는 선배격인 동석기(董錫琪)의 이력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미국에 관한 소식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당시 수많은 한국인 일본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²²⁾ 아마 그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회고록 곳곳에서 미국 내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는 1916년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 건너갔는데, 이후 12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그는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던 듀북(Dubuque)대학과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특히 듀북대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로 신학교로 진학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인문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다.²³⁾ 또한 콜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재한 선교사들과 관련이 있었다.²⁴⁾

둘째, 그의 미국 유학시절 흥사단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는 미국에

22) 장리욱, 『나의 회고록』, 24-25쪽. 1900-1920년대, 미국에 대한 동경과 “근대성”을 서구화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일본에 유학가서 “정칙영어학교”를 다닌 한국인 학생들 중 상당수가 그런 점에 동의했다. 식민지시기 『조선일보』주필로 활동한 역사학자 문일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안종철, 「1930년대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의 시대사상-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6집, 2010, 401-404쪽.

23) 위의 책, 68쪽. 후일 해방 후 그가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던 1946년에는 듀북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24)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있던 피셔(James Ernest Fisher, 1886-1989)인데 그는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논문을 책으로 출간했다. James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인데 이 책은 미군정 인사들의 필독서였다.

건너간 직후인 1916년에 홍사단에 가입하고, 직접 안창호와 함께 미주본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홍사단 미주본부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수양과, 조직을 통한 민주주의 활동과 교육에 집중하기도 했다.²⁵⁾ 특히 그는 듀북대학을 들어가기 전 1916년과, 후일 학교를 휴학하고 1920년대 도산과 함께 한 때 홍사단에서 직접 일하면서 재정을 도맡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국내에 돌아온 후에도 홍사단의 지부격인 수양동우회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 일로 수양동우회사건(1937-39)사건을 겪었고, 신성학교 교장 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셋째는 그의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에서 수학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당시 듀이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사상은 선교사들의 교육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선교사들의 교육목적이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사상을 공부한 선교사들은 교육 자체의 목적을 “민주주의”에 두고, 교육 방법도 거기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당시 한국에서도 연희전문의 제임스 E. 피셔(James E. Fisher)와 조병옥, 김활란, 장리욱 등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과 교육에 대한 입장들이 한국에도 일찍부터 전달되었다.²⁷⁾

특히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다음 구절이 그의 교육에 대한 가장 핵심적 사상을 잘 보여준다.

25) 그의 홍사단 활동과 안창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리욱, 『나의 회고록』, 87-100쪽 참고.

26) 존 듀이, 킬패트릭의 “민주주의 교육”과 이를 한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제임스 피셔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Jong-Chol An, “Making Democracy Compatible with Mission: James Earnest Fisher as a Missionary and US Information Officer in Korea, 1919-1948,” *Korea Journal*, 2020, pp.115-142 참고.

27) 제임스 E. 피셔의 교육과 선교에 대한 생각은 *Ibid.*, pp.120-126.

교육적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고, 진보 혹은 재적응(readjustment)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삶에 대한 자각이야 말로 다른 공동체에 비해 민주적 공동체로 하여금,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한 형태를 넘어선다. 그것은 주로 함께 연결되어 소통되고 경험되는 사회화된 삶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번역 및 강조: 필자)²⁸⁾

즉 교육은 상호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이자,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적 과정인데, 많은 종류의 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비평이나 교육건설을 위한 기준은 “특정한”사회적 이상을 의미한다. 한 형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선택되는 두 가지 지점들은, 한 집단의 이익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도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관계를 맺는 충만함(fullness)와 자유를 의미한다.** (번역 및 강조: 필자)²⁹⁾

28) “Upon the educated side, we note first that the realization of a form of social life in which interests are mutually inter-penetrating, and where progress, or readjustmen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make a democratic community more interested than other communities have cause to be in deliberate and systematic education …… A democracy is more than a form of government; it is primarily a mode of associated living, of conjoint communicated experience.”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Radford, VA: Wilder Publications, 2008(원본은 New York: Macmillan, 1916), pp.79-80.

29) “Since education is a social process, and there are many kinds of societies, a criterion for educational criticism and construction implies a *particular* social ideal. The two points selected by which to measure the worth of a form of social life are the extent in which the interests of a group are shared by all its members, and the fullness and freedom with which it interacts with other groups.” *Ibid.*, p.90.

듀이는 현대 세계에서 교육의 역할이란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과 개인의 자아실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교실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목표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 점은 1차 대전 후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도구로서 교육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도발적인 개념이었다. 이러한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사고와 실험은, 장리욱이 콜럼비아대학 사범대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분위기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³⁰⁾ 다음 초여름[1927년] MA 학위를 같이 받을 때까지는 한두 가지 主要한 學科를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하기도 하면서 수시로 학문적 토론을 가졌다. 그때 우리는 캠퍼스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콜럼비아 대학의 그 學問的, 정신적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콜럼비아는 버클러 總長의 領導 아래 世界的 권위를 가진 교수 학자가 모여있었다. 특히 師範大學院을 中心하고서는 존 듀이의 새 교육철학 또 그 進歩主義 교육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 널리 구라과, 아시아, 南美 각국으로부터 많은 학생 또는 교육 實務者들이 모여들었다. 콜럼비아의 黃金時代가 바로 이때였다.³¹⁾

흥미로운 것은 그의 후일담 회고에 가까운 것이지만, 당시 콜럼비아 대학교 사범대의 분위기 중 선교사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진지한 토의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로는 世界平和問題, 人種差別問題, 人口制限問題 등 갖가지가 있었다. 오늘날에[1967년 무렵]

30) 당시 장리욱이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 대학원에 재학할 때, 평북 선천의 보성 여학교 교장으로 있던 스티븐스(Blanche I. Stevens, 1884-?, 한국명 徐愛溫)이 함께 석사학위를 했다. 스티븐스에 대해서는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477-478쪽.

31) 장리욱, 『나의 회고록』, 117-118쪽.

이르러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時節에 있어서 外國 宣敎事業問題는 역시 새로운 時節이 要請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宣敎事業에 종사하던 많은 宣敎師들이 소위 「安息年」이라고 하여 귀국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 콜럼비아 師範大學院에 모여오는 현상 때문에 생긴 사실이기도 하다.(강조: 필자)³²⁾

장리욱은 후일 위의 인용문처럼 콜럼비아대학시절을 회상하면서 존 듀이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던 것이다. 그는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그 자체로 목적과 수단이라는 존 듀이의 방법에 흥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지시기 장리욱이 신성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민주주의”교육에 대해서 소개했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오히려 선교사들과 서북지역의 노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선교교육을 넘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다. 장리욱이 처해있는 입장은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달랐고, 특히 콜럼비아대학교의 새로운 교육 철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듀이의 교육철학이라든가, 피셔와 같이 선교 교육의 목표를 민주주의에 두는 교육 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해방 후 그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해방 후 활동과 장리욱의 “민주주의”

1. 해방 직후~한국 전쟁기 활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해방 직후 그는 평양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만식을 위원장,

32) 장리욱, 「존·듀이 先生과 콜럼비아大學」, 『새교육』, 1967, 80-81쪽.

오윤선을 부위원장으로 한 16명의 인사들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 한편 8월 말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의 주도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31명 중 한명으로 장리욱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소련군은 이 위원회를 좌우익 동수로 구성하려고 했다.³³⁾ 하지만, 그는 소련 군정 하에서 실망하고, 서울로 향하는 길을 택했고, 아마도 서울에는 9월 중순경에 내려온 듯하다.³⁴⁾

그가 해방 정국에서 중요한 인사로 떠오른 계기는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듯한데,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경력이 교육자로서의 그의 역할에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 그는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설치한 “조선교육심의회”제 7분과에 소속 되게 된 것인데, 여기에는 미군 측의 위관급 혹은 영관급 책임자를 제외하고, 6명(師範教育委員: 張德秀, 張利旭, 金愛麻, 愼驥範, 孫貞圭, 과리大尉, 許鉉)이었는데 이 분과는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교육을 담당하는 분과였다.³⁵⁾ 사범분과위원회의 역할은 “교원훈련, 사범학교의 목적과 학급편성, 장학금, 의무교육실시로 인해서 요구되는 사범학교 설치, 사범대학·고등사범대학 설치, 교원의 재교육, 교육자격 등을 심사결정”

33) 장리욱, 『나의 회고록』, 203-205쪽.

34) 장리욱의 회고록은 그가 남쪽으로 넘어온 날짜들이 9월 중순, 혹은 9월 1-3일로 충돌된다. 하지만, 그는 3.8선을 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간난을 겪으면서 우연하게 지인들의 도움으로 서울로 오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같은 책, 206-214쪽.

35) 당시 교육 제분과들은 9개였는데 그 분과명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教育理念委員: 安在鴻 鄭寅普 河敬德 金活蘭 白樂濬 키과대尉 洪鼎植; 教育制度委員: 金俊淵 金元圭 李勳求 李寅基 俞億兼 에렛少佐 吳天錫; 教育行政委員: 崔斗善 崔奎東 玄相允 李卯黈 白南薰 그랜드대尉 司空桓; 初等教育委員: 李活盛 李揆百 李康元 李克魯 과리大尉 李承畝 鄭錫鳳; 中等教育委員: 趙東植 高鳳京 宋鎮夏 徐元出 비스코中尉 李興鍾; 職業教育委員: 張勉 趙伯顯 鄭文基 李奎載 朴璋烈 로즈대尉 李敬善; 高等教育委員: 趙炳玉 白南雲 俞鎮午 尹日善 크로프스少佐 金性洙 朴鍾鴻; 師範教育委員: 張德秀 張利旭 金愛麻 愼驥範 孫貞圭 과리大尉 許鉉; 教科書委員: 趙鎮滿 趙潤濟 金性達 皮千得 黃信德 윌퀴中尉 崔鉉培. 『중앙신문』 1945. 11. 16.

하는 것이었다.³⁶⁾ 당시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신성학교라는 중등학교에서 10년간 교육책임자로 일한 장리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둘째, 서울로 내려온 그는 1945년 10월 무렵에 경성사범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 이는 아마도 교육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³⁷⁾ 당시 일본인들이 물러간 경성사범학교는 전체 교사 중 한국인 교사들이 불과 4-5명 정도 남았을 정도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중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장리욱이 이 사범학교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교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범학교는 교육이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절실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그가 적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런 배경 하에서 그는 미군정청이 미국 정부에 요청한 대미 사절단(공식명칭은 “교육문화사절단”)의 6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이다. 미군정청은 이미 1945년 12월초라는 이른 시기에, 미국에 가는 한국의 대미사절단과 한국에 오는 미국의 자문단의 상호파견을 미육군 수뇌부에 타진했다.

전쟁부 참모본부(Chief of Staff, War Department)에 요청합니다. 6명의 한국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2개월 동안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의 재건원조(US rehabilitation aid)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 산업, 의료, 교육 및 상업 분야에서 정부 및 시설재단들과 협의하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도 요청합니다: 10명의 민간 교육전문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하고, 58명의 한국인들을 학사과정으로 미국에 가도록, 30명의 한국 의사들을 인턴쉽으로 미국에 갈수 있도록, 또한 2명의 보이스카웃 지도자를 미국 보이스카웃 운영학교들에 보내며, 15명의 미국인 교사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안. [번역 및 강조: 필자]³⁸⁾

36) 「조선교육심사위원회, 각 분과위원회규정과 위원 결정」, 『서울신문』 1945. 12. 2.

37) 장리욱, 『나의 회고록』, 214쪽.

그리하여 1946년 초,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군정청은 “조선의 실정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의 경제와 문화 등 각 방면을 널리 시찰하는 동시에 재건조선을 위하여 이모저모로 원조를 받고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동년 3월 13일 경 떠나서 8월 상순 경 인천으로 돌아왔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표단 명단은 文章郁(外務課長), 高鳳京(京畿高女校長), 金勳(農商局次長), 張利郁(京師校長), 羅基湖(鑛工局次長), 具永淑(醫師)인데³⁹⁾ 여기 보듯이 이 대표단의 파견 목적은 보건위생에 대한 의사교육과 유학생 파견, 그리고 농업과 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제언과 원조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⁰⁾ 그리고 차관급이 여럿 포진한 것에서 보듯이 경제문제에서 실제적인 원조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⁴¹⁾ 비록 이 사절단의 주요목적인 유학생 파견과 미국인 교사 초빙, 그리고 미국 내 각 기관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당장 원조를 얻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 한국인 유학생 파견에 큰 도움이 되었다.⁴²⁾ 이 사절단에서 장리욱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루먼 대통령을 접견하고, 교육부 및 여

38) “A.V. 아놀드 소장이 동경 주재 더글라스 맥아더 육군장군에게,”(1945년 12월 1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Vol. V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1140(이하 FRUS).

39) 원래 초기에 검토된 사절단의 명단은, 이훈구, 이용설, 조병욱, 장리욱, 나기호, 그리고 고헌경이었다. *Ibid.*, 초기 검토된 사절단의 명단이 최종에서 바뀐 것은. 아마도 몇몇 인사들이 미군정청의 고위직에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병욱이 경무국장에 임명된 것은 그 예이다.

40) 사절단의 도미에 대한 기사는 『동아일보』 1946년 3월 13일 자에는 이용설이 나기호 대신에 언급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바뀌었다. 사절단 활동에 대해서는 장리욱, 『나의 회고록』, 220-231쪽 참고.

41) 이 사절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윤종문, 「1946년 미군정의 ‘朝鮮教育使節團’ 미국 파견과 그 결과」, 『민족운동사연구』 96, 2018을 참고.

42) 윤종문, 「1946년 미군정의 ‘朝鮮教育使節團’ 미국 파견과 그 결과」, 333-335쪽.

러 대학들을 방문해서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 것을 설득했다. 개인적으로는 듀북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⁴³⁾

넷째, 장리욱이 미국에서 돌아올 무렵, 경성사범학교가 경성여자사범학교와 더불어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재편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귀국 직후인 1946년 8월 말, 서울대 사범대 학장이 되었다.⁴⁴⁾ 당시 서울시에 있던 전문학교와 기존의 경성제대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립서울대학교로 만드는 안을 둘러싸고 각종 분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장리욱은 사범대 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국립대학안과 관련된 논쟁에 불가피하게 끌려들어가게 되었다.⁴⁵⁾ 학내 분규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대학교가 탄생한 후인, 1948년 5월에 장리욱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겨울 무렵, 총장 사임 압박을 받고 사임했다. 그의 서울대 총장 사임은 새로운 정부가 흥사단 등의 서북지역 인사들을 견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⁴⁶⁾ 그 후 그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까지 흥사단 활동에 매진했다.

다섯째, 한국전쟁 발발 후 장리욱은 대한민국의 전쟁수행을 위해서 유엔연합군사령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특히 전쟁 중에 일본으로

43) 장리욱, 『나의 회고록』, 222-228쪽.

44)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이 내정」,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1946. 8. 28.

45) 장리욱, 『나의 회고록』, 232-235쪽. 당시 문교차장으로 있었던 오천석은 후일 국대안에 대한 평가에서 좌익세력도 문제지만, 당시 교육 당국이 학교 측과 협의없이 밀어붙였다는 것과, 각 독립된 기관들의 기득권 수호를 중요한 이유로 제기했다.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420-421쪽.

46) 서울대 측의 출판물에는 “제3대 총장 장리욱 박사의 재임기간(1948년 5월 12일 -1949년 1월 4일)은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이르는 과도기적 성격의 것이었지만 학내 질서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정부수립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기반 위에서 대학의 발전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문교정책은 독선적인 면이 많았고, 정치적 문제도 개재되어 총장은 다시금 경질되어야 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정치적”문제는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 내 파벌문제가 아닐까 추측된다. 서울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20년사, 1946-1966』, 서울대학교 출판사, 1966, 13쪽.

건너가서 북한 노획문서를 번역했는데 이 팀은 사실상 동경의 연합군 사령부(SCAP)의 아래에 있었고, 1950년 8월 무렵부터 이듬해 4월 정도까지 주로 활동했다.⁴⁷⁾ 이 팀은 제임스 피셔의 지도하에 있었는데, 그는 앞서 언급한대로 콜럼비아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식민지시기 연희전문에서 가르쳤던 남감리회 출신이었다.⁴⁸⁾ 이들 팀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후 활동한 한국인 엘리트들, 문익환, 정경모, 장리욱, 오천석, 박형규, 황진남 등이 함께 했는데, 주로 서북지역, 함경도, 혹은 경남지역 출신의 개신교인들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동지회 계통의 인사들과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다.⁴⁹⁾ 장리욱은 전쟁 후 일본에 남아서, 미8군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방송활동에 종사했다. 이때 방송했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현실과 이상』(새벽사, 1958)이다.

그 후 1958년 무렵 귀국 후, 그는 다시 홍사단 활동에 종사하다가, 4.19를 맞이했다.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았지만 이듬해 발발한 5.16쿠데타로 해임되었다. 사임 후 미국에 남아서 홍사단 활동에 종사하다가 1964년 제3공화국 수립 후 한국에 돌아왔다. 이러한 해방 후 그의 경력을 염두에 두고, 해방이후 혼란기에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 세 가지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의 강한 반공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해방 직후 짧게나마 그가 북한체제를 경험한 것이 배경에 있다. 그의 회고록에 보이듯이 그는 38선을 건너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고, 다른 이북 출신과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로 개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체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그런 점에서 그

47)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510-511쪽.

48) Jong-Chol An, “Making Democracy Compatible with Mission,” pp. 136-138참고.

49)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510쪽. 이 팀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람들과 이승만 행정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는 국립서울대학교안(1946)을 둘러싼 갈등을 공산주의자들이 사주한 것으로 파악했고, 좌우대립의 문제로 보았다.⁵⁰⁾ 또한 그는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그런 배경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강력히 지지했다.

둘째, 그는 흥사단 활동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는데, 지역적 차별 혹은 차이와 별개로, 이는 그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특히 그가 이승만 정부와 각을 세운 계기는 바로, 서울대 총장의 사임문제였는데, 그는 새로운 정부가, 당시 합법적으로 서울대학교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된 총장을 사임토록 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하여 그는 사임서를 정부의 문교부가 아닌 서울대학교 이사회에 제출했다. 사임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후일 그가 주미대사로 있을 때인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쿠데타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 것도 절차 문제에 대한 강력한 성토였다.

셋째, 그의 민주주의론은 한국전쟁 전후로 유엔연합군사령부하에서 북한 노획 문서를 번역하고, 일본에서 방송활동을 통해서 굳어진 부분이 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늦가을에 일본에 가서 연합군사령부 아래에서 다른 한국인 엘리트들과 더불어 연합군의 전쟁수행을 위해서 북한의 노획문서를 번역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여기서 그는 미국과 연합군의 전쟁수행을 돕는 한편으로 강력한 반공민주주의를 견지했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한인들 중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육성하는 작업을 했다.

2.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활동과 “민주주의”

한국전쟁 이후에도 그는 일본에 계속 남아서 1958년 무렵까지 활동을 했는데, 특히 유엔연합군 사령부하에서 라디오 방송활동에 참여했

50) 장리욱, 『나의 회고록』, 232-235쪽.

다. 그는 후일 방송 원고를 책으로 엮어내었는데, 앞서 언급한 『현실과 이상』이 그 책인데, 주된 내용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였다.

흥미롭게도 이 기간에 그는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 내에서 북쪽과 관련된 조총련계 비해 열세에 있었던 일본 대한민국거류 민단(이른바 “민단”)을 육성하는 일에 종사했다. 특히 그는 민단 측과 관계된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韓國學生 育英會”를 1952년 가을 경부터 구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양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아시아재단은 한국 유학생들의 기숙단체인 “花郎莊”에 대한 지원과 하계수련회 등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었다.⁵¹⁾

그가 방송과 책에서 설파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수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홍사단의 여러 강령과 통하는 것이었다. 그는 연합군사령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최소 1주일에 한번 정도 한국에 방송을 보냈는데 『현실과 이상』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잠되고 健全한 民主主義의 發展을 통해서 우리 겨레의 永遠한 繁榮과 隆盛을 이룩하는 그 크고, 바르고, 또 튼튼한 길은 오로지 **우리 各國民의 健全성에 依存한다는 것이 내가 故國 同胞에게 드린 말씀의 大宗이었다.**(강조: 필자)⁵²⁾

즉 개인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민주주의”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홍사단의 기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였다.⁵³⁾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선거”로 대표되는 대의제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선거라는 대의제를 방해한다는 것은 강력히 비판받

51) 장리욱, 『나의 회고록』, 263-265쪽.

52) 장리욱, 『현실과 이상』, 새벽사, 1958, i쪽.

53) 장리욱, 『현실과 이상』, 245-253쪽.

아야 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러한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는, 참된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을 中心삼은 것이요, 둘째로는 사람의 문제를 處理하고 判斷하는데 있어서 거기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關與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基準되는 原則을 無視하고서는 그 누구가 제아무리 民主主義의 化身이라고 自稱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民主主義的 形式과 假裝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早晚間 本色은 들어나고야 말 것입니다.(강조: 필자)⁵⁴⁾

사람을 중심으로 삼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관여한다는 것은 인민주권주의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의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유용성은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중 하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한 나라와 같이 그 成員의 數가 몇 百萬 몇 千萬으로 거대하고 또 그 組織이 복잡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서 되어 나아가는 千萬가지 일을 모주리[원문] 간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네 가운데서 能力도 있고 誠意도 있고 또 自己네의 期待하는 것을 저버리지도 않을 眞實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나라 그 社會 모든 部門의 일을 專門的으로 하게 하는 것이 곧 그 方法인 것이올시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點은 이렇게 所重한 投票權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萬一 한두 가지 主要한 精神 혹은 要素를 갖추지 못한 投票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한 悲劇밖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닐 것이올시다.(강조: 필자)⁵⁵⁾

54) 장리욱, 『현실과 이상』, 249쪽.

55) 같은 책, 254-256쪽.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선거권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사실상 50년대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선거제도의 변화라든가 부정선거 의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줄곧 올바른 여론의 형성, 개인의 건전성과 과학정신, 비판정신 등을 통해서 시민적 덕성을 높여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⁵⁶⁾ 매우 온건한 자유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제도, 특히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남북문제와 같은 주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승만 정부는 장리욱의 일본 내에서 활동을 불안한 눈으로 예의주시했고, 이들을 지지하던 제임스 E. 피셔 같은 인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⁵⁷⁾ 특히 이승만은 동경의 연합군사령부내의 한국인 전문가 팀에 자신의 측근들이 임명되기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이 팀을 실제로 운영한 제임스 피셔만 아니라 이 팀의 구성원들, 특히 장리욱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⁵⁸⁾

56) 장리욱, 『현실과 이상』, 267, 273, 275, 277쪽 등등.

57) 미군정 당시 피셔는 미군정 정무위원회(Political Advisory Committee)에 소속되어서 이승만을 설득, 미정부가 설정한 신탁통치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주로 서북지역인들로 이루어진 한국 전문가팀을 피셔가 이끌자, 이승만 정부는 그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피셔와 이승만의 관계는, J. Ea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pp.218-227.

58) 이승만은 피셔에 대해서 실제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피셔가 한국전쟁과 직후에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에서 운영한 한국 전문가팀들의 구성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었다. 그 한국 전문가팀에는 장리욱 등을 포함한 서북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Kyung Mu Dae (Ms. Francesca) to Dr. Oliver,” 1957년 3월 14일 편지, 『이승만관련서한자료집』 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totalCount=1&itemId=le&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le_009_025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Fisher&searchKeywordConjunction=AND).

장리욱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한민당 정부의 구성에 동의했지만,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입장에 섰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북지역의 동우회/홍사단체열(안창호)과 서울/기호지방의 동지회 계통(이승만)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당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냉전 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인사마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신생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허용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년대 말 홍사단 활동을 했던 장리욱은 1960년 4.19이후에 다시 주미대사가 되어서 정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주로 신임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브라질대사를 겸직해서 브라질에 다녀오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에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는 이 쿠데타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저의 견해로는 어제 [5.16]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원칙에 의해 기초한 우리 헌법은** 의회와 법적절차를 통해서 정부형태의 변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혁명적인 조치는 새로운 정부를 위한 어떤 다른 조항이 없을 경우에만 호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2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국민들에 의한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적절한 입법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모색되어야만합니다.(번역 및 강조: 필자)⁵⁹⁾

즉 한국은 민주적 원칙에 기초한 헌법이 있고 제 2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기에 쿠데타는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⁵⁹⁾ “Korean Ambassador’s Statement on Military Coup,” May 17, 1961 (장리욱 가족 소장 문서).

그는 군부쿠데타가 성공하자 당시 공사로 함께 일하던 고허림 박사와 더불어 주미대사직에서 사실상 해임될 수 밖에 없었다.⁶⁰⁾

장리욱은 주미대사를 사임한 후 미국에서 다시 홍사단 활동을 하면서 『홍사단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만들면서 3년여 활동하고 1964년 귀국했다. 이때부터 1974년, 모든 공적적 일에서 사실상 은퇴하고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때까지 『샘터』라는 잡지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홍사단 활동에 관여했다. 이 시기에 그는 한국의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하에서 대학교육에서의 대학의 제도적, 교수의 질, 그리고 학생의 학업 동기 등과 아카데미즘의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대학 행정과 정책의 개입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국가의 발전과 隆興에의 길에 이렇듯이 긴요한 지위와 사명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즘은 물론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園丁이 苗木을 기르듯이 주도한 경계심과 보호의 손길이 줄곧 더해짐으로써만 가꾸어 질 수 있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이렇듯 존귀하고 소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곧 국가요 또 大學 자체인 것이다. **아카데미즘을 육성하는데 당국이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大學 안에 自由와 自治를 보장해주는 일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정부도 가장 인색한 태도를 드러내 보인 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大學에 이 自由를 資本삼아 두툼하게 투자한 나라일수록 그들이 거둔 이윤은 컸다. (강조: 필자)⁶¹⁾

60) 공사직을 사임한 고허림은 가족과 미국에 남았다. 그의 자녀 중 고허주(Harold Hongju Koh)박사는 예일법대 교수로 주로 국제법과 인권법을 가르치면서,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와 국무부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라는 고위직에 있었다. 고허림에 대해서는 Howard Kyongju Koh et al., *Koh Kwang Lim: Essays in Honor of His Hwehap: 1980*, New haven, CT: East Rock Press, 1980, pp.2-8.

61) 장리욱, 「한국의 아카데미즘」, 『신동아』 9, 1969, 130쪽.

그는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학교의 “학도호국단”제도 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통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이는 그의 일관된 입장, 즉 인간중심의 교육이라든가 대학 내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입장과 관련이 있다.

그는 1974년 무렵에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서 1983년 사망할 때까지 해외에 거주했다. 가족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유신시대의 폭압 속에서 본인이 원로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것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사망 직전까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소망했다.

IV. 결론

이상에서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영향력을 끼쳤던 한 세력을 대변했던 장리욱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장리욱의 생애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입장에 더해 새로운 해석을 도모해보려고 했다. 여기서 간단히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첫째, 잘 알다시피 장리욱은 1916년 조선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1928년 초 귀국을 했는데, 식민지시기 주로 중등학교인 신성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려고 했다. 한편, 그는 보수적인 장로회 선교사들과도 알고 지냈지만, 신성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걸려있는 “지정학교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성공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서의 “학력”인증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었다.

둘째, 해방 이후 그는 주로 민주주의 교육에 매진하면서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으로서 그런 교육을 실천하려고 했고,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나름 그의 이상을 펼치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했기에, 이른 바 “좌파”가 주도하는 국립대학교설립안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비록 이승만에 반대하면서 총장직에서 해임당했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가서 연합군의 전쟁 수행을 문서활동과 방송활동 등을 통해 도왔다. 그런 점에서 그의 민주주의론은 대의민주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한편 일본에서 그의 활동이 연합군사령부나 아시아재단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그는 1958년 이후 귀국 후 한국에서 홍사단이 발행하는 『새벽』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주미대사로 임명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무렵에 5.16군사정변으로 주미대사에서 역시 해임되게 되었다. 다시 몇 년간 홍사단 주미위원부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했다. 귀국 후 60-70년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그는 주로 언론 활동, 특히 70년대, 『샘터』(발행인 김재순)의 고문이자 기고자로 한국사회에 중요한 민주주의론을 제공했다. 언론활동을 통해서 그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민주주의론과 그의 기초로서 인간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는 비록 냉전 하에서 살면서 한국 내에서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개인의 민주사회에서의 각성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한 결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개혁이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민주주의론”이 가진 범위와 한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도도히 흐르는 “자유주의적” 혹은 “민주주의” 사상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류지성사에서 “개발주의적” 근대화론과 권위주의라는 흐름과는 대척점에서 있는 면에서 주목된다.

그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눈여겨보면서, 특히 1950년대 일본에서 연합군사령부와 아시아재단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

들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승만 정부가 미8군 연합사령부와 한국 엘리트들과의 관계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견제했다는 점을 볼 때, 한국의 주류 엘리트층들이 넓은 의미의 “반공주의”에 동의했지만, 냉전하의 한국 내의 엘리트 층 내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둘러싼 이해나 균열을 더 섬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리욱은 그러한 이해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지점들을 통해 20세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론”의 성취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1. 10. 13. 심사완료일: 2021. 11. 22. 게재확정일: 2021. 11. 24.

주제어: 장리욱,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주의, 반공주의, 기독교, 흥사단, 콜럼비아대학교

참고문헌

1. 1차 자료(회고록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장리욱, 『나의 회고록』, 샘터, 1975.

_____, 『현실과 이상』, 새벽사, 195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2. 국문문헌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민경배, 「백낙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정립하다」, 『한국사시민강좌』 43, 일조각, 2008.

박혜진, 「선천지역 미션스쿨의 지정학교 승격과 학교 인계 과정 연구」, 『역사학연구』 38, 2010.

_____,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미션스쿨에 대한 한국인의 경영 참여」,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2013.

서울대학교2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20년사, 1946-1966』, 서울대학교 출판사, 1966.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안종철, 「1930년대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의 시대사상-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6집, 2010.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윤종문, 「1946년 미군정의 ‘朝鮮教育使節團’ 미국 파견과 그 결과」, 『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 이윤미, 「일제하 미국 유학생으로서의 오천석: 유학생회 활동과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 2017.
- 장리욱, 「한국의 아카데미즘」, 『신동아』 9 (1969): 122-131.
- 정원식, 「오천석, 새 나라의 교육을 설계하다」, 『한국사시민강좌』 43 : 일조각, 2008.
- 제·에네스트 피셔, 『민주주의적 생활』 남조선과도림시정부 여론국, 1947.

3. 외국어 문헌

- 이성전,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東京: 社會評論社, 2006.
- An, Jong-Chol. “Making Democracy Compatible with Mission: James Earnest Fisher as a Missionary and US Information Officer in Korea, 1919–1948,” *Korea Journal* Vol.60, No.4, 2020.
-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Radford, VA: WilderPublications, 2008.
- Fisher, J. Earnest, *Pioneers of Modern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 Lane, Melissa. *Greek and Roman Political Ideas*, London and New York: Penguin Group, 2014.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and Other Essay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De Tocqueville, Alexis. (Trans. Gerald E. Bevan). *Democracy in America and Two Essays o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3.

<Abstract>

Educational and Social Activist Lee-Wook Chang's Activities and Understanding of Democracy

Jong-Chol An*

This paper deals with Lee-Wook Chnag (1895-1983)'s activities and his understanding of Korean democracy. He was an important and active Korean intellectual and leader during colonial and post-colonial context. Chang was one of very few people who went to the U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ttended Dubuque college and Columbia University, BA and MA program respectively. In the Columbia University, his teachers were John Dewey and William Kilpatrick who developed a new ideas and approaches on democracy and education. Returning to Korea, Chang worked as Principal at Sinsŏng [Middle] School and served *Suyangdonguhoe*, domestic branch of *Hŭngsadan* whose founder was the famous Korean national leader, An Ch'ang-Ho.

In post-colonial context, Chang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took very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communist regime.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he worked as Principal at Seoul Normal School, a College De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then President at SNU. However, He was not greeted by Syngman Rhee who was antagonistic towards An Ch'ang-Ho. Thus, Chang was forced to resign from the President of SNU.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Chang and several Korean elites went to Tokyo to serve the Headquarters of

* Assistant Professor, 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the Allied Forces where he translated North Korean documents to English ones. By 1958, with the help of the Asia foundation, Chang managed a broadcasting program on “democracy” while he supported the South Korean-friendly organizations in Japan.

When he returned to Korea in 1958, Chang was not still welcomed by Syngman Rhee regime. Only after April Revolution, 1960, he was called as Ambassador to the US, but that career was also disrupted by May 16 Coup in 1961. Chang again stayed in the US, helping *Hŭngsadan*, and only in 1964 he returned to Korea. In Korea, he participated in managing magazine and writing several articles on Korean democratic issues. Mr. Chang’s case is highly interesting because his ideas and activities such as anti-communism, due process, and the value of freedom in academia show the boundary and limits of democracy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era.

Key Words: Chang Lee Wook, Democracy, Education and Democracy, Anti-Communism, Christianity, *Hŭngsadan*, University of Columbia